



20250720 주일 설교

제목: 아비, 멜렉

본문: 사사기 9:1-6

설교: 이성훈 목사

-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 2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 3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 4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 5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 6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담임목사님 한마디:

영육 간 기초가 중요해요

세수, 깨끗, 큐티가 영으로 씻는거예요

잘된다고 하는 말들이 영혼위에 화장품을 덧바르는 것입니다

태평오니 문란해집니다. 사사시대와 대한민국 둘다 같습니다. 여성이 인권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드보라 아닌 바락이 올라갑니다. 질서를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남자 세우기위해 이 교회가 세워진겁니다.

여성인권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밀지는 겁니다.

자기자리를 알고 말씀과 내 위치를 아는 바락이 올라갑니다. 여자가 아니라 복음이며 각자 처한 자리 질서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내 주제와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빠인 여자가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야

남자는 흠이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잇으면 결혼하라는 명언 남자고 여자면....

질서를 지키니 이혼을 안하고 삽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큐티를 하는 것이고 구속사적 맥락으로 큐티를 하시기 바래요

팅크트립은 인간관계 훈련이야. 힘들죠 갖는데도 태평한 사람은 안들려요 말씀이... 안들리면 태평한가보다... 하며 인정하고 배려해야죠 Tingkrtrip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말만 할수 잇어 그거는 저분은 태평하구나... 하면 되요

10일 같이 하는것이 흔한 기회가 아닌 겁니다

영적건강이 가장 중요 교만해도 스트레스. 열등감도 스트레스 인생이 흑암위에 공허함이 잇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불안한데.... 하루종일 이해타산 없이 떠드는 아련 공동체가 이땅에 없다는 거예요

꿍임 없이 이야기하고 살리려고 하니까 제가 제일 요즘 건강하다니까요. 정죄되지 않는 모임, 좋은 목장은 고발이 아니라 망가지는 곳인 거죠

자기죄를 보는 사람은 망가지거든요.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인겁니다.

싸우는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에요. 건강하게 푸세요.

말씀시작:

우리는 어떤 왕을 섬겨야하는지 보시죠

1. 아비, 멜렉의 방패는 무겁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무겁기에 아비멜렉을 섬기면 안됩니다.

지역의 왕을 가르키는 이름인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준이유는 기죽지 마라는 첩의자녀인 서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을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삶은 낮에는 친구들의 물음을 들으며 아무렇지않은척 살았겠지만 집에와 밤이 되면 자기이름에 놀려 더 서럽고 외롭고 억울해서 울었을거 같습니다.

아비멜렉을 형제들은 무시했을 것입니다. 꾸역꾸역 세겜으로 돌아온 아비멜렉입니다.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왕이되겠다고 한적도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적도 없는데 아비멜렉이 스스로 판을 만들고 선동을 합니다.

이상한 부탁을 하는데 외가 식구인 가족이기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서자아니야? 라는 말에 외가 식구들은 고생을 한 아비멜렉이 고생한 내용과 우리세겜 사람이니 우리 잘먹고 잘살게 해줄거 아니니?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아비멜렉이 이름뿐인 방패가 아니라 실제로 내옆에 아비멜렉들이 샌것구나 하며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능 좋은 방패일수록 무겁기 마련입니다

이무거움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그 무게로 짓눌려 죽는겁니다

우리도 나의 수치를 가려줄 방패를 찾아다니잖아요

학벌 좋은 배우자 직장 자녀 잘키워서 나를 대접하도록
새로운 방패 찾아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잠깐 나를 지켜주는 거 같지만 무겁고 그 대가를 언젠가는 청구합니다 이유는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어기제로 자신을 보호하느라 힘드셨던 무대, 대인공포증 있는 성도님, 내가 들 방패는
제복입은 경찰 이었으나 돌아온것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많아 더 비교와 열등해지고 고생을
많이 하심.

오픈의 능력을 모르고 감추려고 했기에 더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냥 오픈하고
공포증 있다고 하면 될것을 그걸 몰랐기에 내가 수고했다고 나누셨습니다.

나의 열등감 부끄러움을 까달는 것이 무거운 방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것을
목장에 가서 나누시고 말씀으로 지체들과 같이 해석하시고 끊어내는 것이 방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2. 아니(나는) 멜렉(왕이다) 의 칼은 무섭습니다

은 세겔은 바알의 우상신전에 있었습니다.

세겔 모든사람을 직역하면 세겔 모든 바알들 단어를 굳이 바알들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니 잘
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도 여룹바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겔이 바알을 섬기는 작은 바알들로 이루어진 소굴이 되고 그 한복판에 아비멜렉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떠나는 것은
한순간이고 태엽같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슴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잔소리하는 그 한사람이 있다면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임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징하기 위해 경박한 무리를 고용했습니다

방패로 만족하지 못하고 칼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내맘대로 맘껏 휘두를 칼을 구한 거예요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는 왕이다.

이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칼을 휘둘러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인간취급하지 않던 형제들을 아주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며 분을 푸는 악한 짓을 합니다. 힘이 있으니 결국 하는 것이 잔인함입니다. 칼이 문제일까요?

칼을 휘두르는 아비멜렉의 문제이고 가지고 싶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폭력은 선택적이지 않고 통제적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 쓰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본성은 다 폭력적이기 때문에 누구든 상황이 되면 폭력을 쓸수 밖에 없습니다.

직원에게 긴 훈계의 글을 쓰고 인정받으며 자랑이었던 회사가 가기싫어졌는데 회사를 잘 다닌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인정받고 힘이 있는거 같으니 동료에게 제 마음대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가 되고 정중하게 긴 사과의 문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보시고 쉽지 않은 사과를 하셨다는 것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릴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거 하나라도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실줄 믿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칼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라는 것이고 상황과 사람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구원해가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 내가 제일 사납고 폭력적이라는 것.

칼이 없는 것에 감사하고 칼을 쥐고 잇는 것을 회개하고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 야훼 멜렉의 신앙만이 답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옆 기둥은 아세라 목상일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상적인 이스라엘백성이라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여기서 작은 바알들이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번 반복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딱한번 왕을 세우시는 때가 지금 이 장면입니다. 강조하며 드러내십니다. 지금 이게 문제다 여기를 보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 왕을 만들어줄거 같은 우상의 산당을 쌓으며 발맞춰 그래 네가 왕이다 하는 작은 바알들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진짜 인정해서 그랫을까요? 나에게 떨어질 이익을 위해 자기가 왕되기위해 그러는 것이죠...

묵상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패드는. 그. 무거운 수고를 멈추고 무서운 야훼멜렉의 칼 휘두르는 것 고생스럽잖아요... 이제는 야훼멜렉의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합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도 고백처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천하장사였던 성도님이 코치가 되니 자기처럼 가르쳤는데 능력있는 코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여서 운동하고 대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주장은 선수편이 되어.. 총채적 난국에 집합을 시켜 더 혼냈더니 잠시후 선수 한명에게 문자가 와서 녹음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님이신 성도님이... 머리로네가 옳다를 하고 싶은데 얼굴보면 속이 터지고 안되고 어떻게 저럴수 있는지 판단이 되었지만 목장하며 인정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인정이 되셨고요. 남겨진 고라자손같은 선수들이라는 것이 고백이 된다고 나누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안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가 내가 할수 잇는 최대치입니다.

적용질문

여호와와 왕이시다를 고백하기 제일 어려운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가 잘 받아야할 하나님의 코칭은 무엇인가요?

